

|  
글. 김형수\_ Kim, Hyeong-su  
·  
대한건축사협회 편집국장

#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과 한국건축의 현주소

Korea Won the Gold Lion at the 14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in  
2014 La Biennale di Venezia, and Where is  
korean Architectural Position?

2011년 UIA 서울총회 유치 성공에 이어 2014년 대한민국 건축계에 또 하나의 낭보가 들려왔다. 제14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한국관이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것이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1895년에 시작하여 전 세계 250여개 비엔날레의 모태 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베니스영화제와 더불어 양대 예술제로 손꼽힌다. 미술과 건축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는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대한민국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1993년 백남준 화백 이후 두 번째다. 그러나 백남준 화백은 독일관의 참여작가로 미술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건축분야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은 베니스비엔날레에 1995년 한국관을 처음 건립한 후 19년 만에 최고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오르며 한국의 건축은 국제적인 지명도 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베니스비엔날레를 준비한 커미셔너와 큐레이터는 기존의 지명도 있는 작가가 아닌 공모방식을 통하여 선정된 작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주최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기존의 주제 및 전시 방법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적극적인 개혁을 하였던 것도 수상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비엔날레의 조민석 커미셔너는 “한국 건축사들의 실천적인 활동이 최초로 국제적인 인정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번 건축전의 총 감독인 렘 콜하스가 제시한 올해의 주제는 ‘근대성의 흡수 : 1914~2014’ 였는데, 한국관은 남북한의 건축이 갖는 특수성을 부각하여 황금사자상을 거머쥐었다. 한국관의 주제는 ‘한반도 오감도’로 분단 이후의 남북한이 알아간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를 건축적인 시각으로 표현하였다. 전시의 대상은 서울과 평양이다. 1950년대에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두 도시가 60여 년 동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변화된 모습을 극단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 미국 프로젝트관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했다.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세종대 등에서 강의한 바 있으며, 국토해양부 중앙심 의위원, 대법원 특수감정인, 서울특별시 건축심의 위원, 서초구 건축심의위원, KOICA 전문위원, 서울 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대회의 유치와 유명 건축상의 수상이 우리나라의 건축이 세계 건축의 주류에 편입되었다거나 거기에 걸맞은 저력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한국의 건축적인 토양이 비옥하고 활력이 있어서 이러한 환경에서 커나간 건축인들이 베니스비엔날레에서의 수상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땅의 건축적인 환경이 너무나도 척박하다.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부딪치는 현실은 우수한 학생들이 결국 건축설계의 길을 계속하지 못하게 만든다.

건축의 길에 들어선 젊은 세대나 기성세대에게도 현실은 척박하기만 하다. 여유롭게 아름다운 건물을 창작할 수 있는 여유는 고사하고 생계를 걱정해야 할 설계수가는 건축사들

의 삶과 꿈을 옥죄인다. 또한 다양한 건축 규제와 건축을 문화가 아닌 부동산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의식으로 인해 작품다운 작품을 진행하기 어려운 한국 건축의 현실은 잇따른 국제 행사에서의 훌륭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외화내빈의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한국 건축사의 저력을 믿지 못하는 사회적인 풍토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기념비적인 대형 건물 을 비롯하여 국내 유수의 대형 프로젝트들은 외국 건축회사들의 독무대가 되었고, 한국의 건축사 사무소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외국 하청회사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인천신공항 등 많은 건축물들이 외국 회사의 디자인에 의존한다. 외국계 회사를 선호하는 건축주의 문화적인 사대주의를 한국의 회사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나 몇몇 대형 건축물들 이외에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일상화된 건축의 디자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유럽의 작은 도시, 작은 골목에 위치한 아름답고 독특한 수준 높은 건물들을 마주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작품이 아닌 일상의 소소한 건물들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살리는 데에도 건축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건축의 질을 건물의 연면적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건물의 문화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건축주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이제는 한국의 건축도 시간을 갖고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 세계 건축의 주류에 편입하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작은 성과에 만족하여서 스스로의 실력을 높여나가는 데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 일본의 경우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을 6번이나 수상할 만큼 그 건축적인 기반이 튼튼하며 국제적인 위상도 높다. 한국 건축이 근래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주의 깊게 볼 성과를 내고 있으나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특정 건축 행사에서의 수상이 아닌 세계 건축계가 한국 건축디자인의 저력을 실제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세계 건축의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 ▣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